

단체명상으로 테러리즘 막는다

불교의 명상을 통해 국제테러를 72% 감소시킬 수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있어 눈길을 끈다.

범죄자 재활 신문(Journal of Offender Rehabilitation)은 최근 '마하리쉬 마헤쉬(Maharishi Mahesh)의 초월명상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테러 및 국제분쟁을 줄일 수 있다'며 "7000명을 대상으로 초월명상을 임상시험한 결과 전세계적으로 국제적인 충돌이 감소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7000여 명상그룹은 1983년부터 1995년까지 총 3회에 걸쳐 대회 8~11일간 초월명상에 참여했고 결과는 테러에 관한 정보와 데이터 수집 전문 기관인 캘리포니아 '랜드(Rand)' 사(社)가 분석했다. 랜드는 "정보 수집 결과 국가 및 국제분쟁이 30% 감소했다"고 밝혔다.

초월명상(Transcendental Meditation)은 마하리쉬 마헤쉬가 창시한 것으로 명상과 요가공중부양법을 활용한 것이다.

120여 나라에서 600만 명이 초월명상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틀즈 멤버였던 조지 해리슨이 인도에서 TM에 심취하면서 전세계적으로 폭발력을 얻게 됐고, 현재는 미국 유명 토크쇼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가 초월명상을 하고 있다.

현대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명상법으로 새롭게 개발된 초월명상의 방법은 간단하다. 불교의 참선이나 묵상법은 철학적 주제나 명제를 마음속에 골똘히 생각하면서 좌선에 들어가지만 이 명상법은 각자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서 자신의 만트라를 통해 입정상태에 들어간다. 이 방식으로 2006년 미국 워싱턴서 75일간 대규모 집단 초월명상이 진행된 적이 있다.

초월명상운동 세계본부측은 "워싱턴에서 1200명이 초월명상과 그 상급과정인 요가공중부양법을 2006년 7월 대규모로 시행한 결과 극적인 변화들이 미국과 세계에 뚜렷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본부측에 따르면 대규모 초월명상으로 7월 중순 배럴 당 78달러까지 치솟던 유가는 25%이하인 58달러 떨어졌고, 당시 미국이 중개한 레바논 사태가 종결됨으로써 폭력 위협성을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초월명상 임상실험 테러 감소

120여 국가 600만명 이용

물리학 마이스너 효과 때문

이런 현상에 대해 세계적인 양자물리학자 존 헤글린(John Hagelin) 박사는 "국가 인구 1%제공근에 해당하는 인원이 단체로 초월 명상을 하면 범죄나 폭력 등 국가의 부정적 기류는 감소하고 경제와 사회가 긍정적으로 개선된다"며 "이 사실은 희망이 아니라 지난 50년 간 현실실험에서 입증된 엄밀한 과학"이라고 강조했다. 헤글린 박사는 "이는 물리학의 마이스너 효과(Meissner Effect)로 설명할 수 있다. 초전도체(超傳導體)가 그 내부 원자들의 강력한 통합력을 바탕으로 외부에서 침투하는 모든 영향을 물리치는 현상"이라며 "수행자들이 국가의식 속에 통합력을 증가시킴으로써 테러, 분쟁, 허리케인 같은 파괴력을 물리치고 국가에 미칠 손해를 예방하는 것도 이와 같은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7000여 명상그룹은 1983년부터 1995년까지 총 3회에 걸쳐 대회 8~11일간 초월명상에 참여했고 결과는 테러에 관한 정보와 데이터 수집 전문 기관인 캘리포니아 '랜드(Rand)' 사(社)가 분석했다. 랜드는 "정보 수집 결과 국가 및 국제분쟁이 30% 감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그룹명상하는 참가자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1950년대 티베트 독립운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고 중국 언론 매체들이 최근 독일 신문을 인용, 보도했다. 베이징천바오(北京晨報)는 독일의 중도 좌파 성향의 일간지인 쉐프타이체 차이퉁(SZ)의 보도를 인용해 CIA가 1950년대 티베트 무장 독립 세력에 매년 18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1951년 미국은 인도에서 달라이 라마의 특사와 접촉해 티베트 독립운동 세력의 '경무장'을 지원키로 했다.

美CIA, 1950년대

티베트 독립운동 지원

또한 CIA는 미국으로 티베트 유격대원들을 불러와 사격, 지뢰 매설, 폭약 제조 등의 훈련도 시켰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듬해인 1949년 중국은 군대를 보내 티베트를 합병했다. 그러나 1959년에는 티베트 곳곳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대규모 봉기가 일어났고 진압 과정에서 최소 수천명이 희생되면서 달라이 라마가 인도로 망명하게 됐다.

미국으로 티베트 유격대원들을 불러와 사격, 지뢰 매설, 폭약 제조 등의 훈련도 시켰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듬해인 1949년 중국은 군대를 보내 티베트를 합병했다. 그러나 1959년에는 티베트 곳곳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대규모 봉기가 일어났고 진압 과정에서 최소 수천명이 희생되면서 달라이 라마가 인도로 망명하게 됐다.

중국 쓰촨성서 티베트 승려 또 분신 티베트 승려들의 분신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7월 17일 18살의 젊은 승려가 분신했다고 티베트 망명정부가 밝혔다. 인도에 있는 티베트 망명정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쓰촨성 바르캄의 한 사원 소속의 승려 톱상 모친이 어제 중국정부의 강압적인 행동에 항의하는 구호를 외치며 관공서로 행진하면서 분신했다고 말했다. 망명정부측의 한 관계자는 "현지 티베트 주민들이 경찰의 사원 진입을 막기 위해 사원으로 통하는 모든 교량과 길을 철저히 봉쇄했다"고 말했다. 중국의 티베트 지배에 항의해 분신한 경우는 지난 2009년 이후 이번이 벌써 44번째다. 인권그룹 '프리 티베트(Free Tibet)'는 "이번 분신 사건을 계기로 티베트 미래 문제를 티베트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압력을 가해야 한다"며 중국의 강경 조치에 항의했다.

중국 쓰촨성서

티베트 승려 또 분신

인도에 있는 티베트 망명정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쓰촨성 바르캄의 한 사원 소속의 승려 톱상 모친이 어제 중국정부의 강압적인 행동에 항의하는 구호를 외치며 관공서로 행진하면서 분신했다고 말했다. 망명정부측의 한 관계자는 "현지 티베트 주민들이 경찰의 사원 진입을 막기 위해 사원으로 통하는 모든 교량과 길을 철저히 봉쇄했다"고 말했다. 중국의 티베트 지배에 항의해 분신한 경우는 지난 2009년 이후 이번이 벌써 44번째다. 인권그룹 '프리 티베트(Free Tibet)'는 "이번 분신 사건을 계기로 티베트 미래 문제를 티베트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압력을 가해야 한다"며 중국의 강경 조치에 항의했다.

인도에 있는 티베트 망명정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쓰촨성 바르캄의 한 사원 소속의 승려 톱상 모친이 어제 중국정부의 강압적인 행동에 항의하는 구호를 외치며 관공서로 행진하면서 분신했다고 말했다. 망명정부측의 한 관계자는 "현지 티베트 주민들이 경찰의 사원 진입을 막기 위해 사원으로 통하는 모든 교량과 길을 철저히 봉쇄했다"고 말했다. 중국의 티베트 지배에 항의해 분신한 경우는 지난 2009년 이후 이번이 벌써 44번째다. 인권그룹 '프리 티베트(Free Tibet)'는 "이번 분신 사건을 계기로 티베트 미래 문제를 티베트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압력을 가해야 한다"며 중국의 강경 조치에 항의했다.

“초기경전 서술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세계의 불교학자(26)

요한네스 브롱코스트
스위스 로잔대 교수



요한네스 브롱코스트(Johannes Bronkhorst·66) 스위스 로잔대 교수는 인도 사유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산스크리트어의 토착 문법, 고전 힌두이즘의 종교적 관념, 자이니즘과 불교의 분야에서 철학·학문적으로 역점을 두고 있다.

브롱코스트 교수는 영어, 불어, 독어, 네덜란드어 등 4개국어를 유창하게 하며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등의 문헌을 다룬다.

1980년 이래 그가 발표한 114편의 논문들이 영어, 독어, 불어 네덜란드어 등으로 발행되는 세계 유수 저널들에 실릴 정도로 그의 활동영역은 국제적이다. 그가 언어적 감각을 지니게 된 것은 그의 출신국가 때문도 있지만 대학졸업 후 떠난 인도 유학에서 기인한다.

네덜란드 출신인 브롱코스트 교수는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전공하고 고등학교 교사로 활동했다.

1960년대 후반 그는 인도 뭍으로 유학을 떠나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를 공부했다. 1979년 문법학 분야를 주제로 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1980년 라이덴 대학에서 '빠니니 문법학의 이론적 측면'이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라이덴 대학의 케른(Kern) 연구소 연구원을 시작으로 런던대학 SOAS의 산스크리트어 강사를 거쳐서 1987년 스위스의 로잔대학 범어학 인도학교수로 임용됐다.

1997년에는 파리의 고등연구원(Ecole Pratique des Hautes Etudes)에서, 1999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에서, 그리고 2000년에는 런던대학 SOAS에서 강의했다.

브롱코스트 교수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Theoretical Aspects of Panini's Grammar>(1980), <The Two Traditions of Meditation in Ancient India>(1986), <The Two Sources of Ancient Indian Asceticism>(1993)이 있고 대표적인 논문으로 'Dharma and Abhidharma' BSOAS(1985) 등이 있다.

브롱코스트 교수는 초기경전의 서술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다.

그는 1985년 발표한 논문 '다르마와 아비달마'에서 "초기불교에 관한 어떤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초기경전 만으로는 신뢰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가능한 모든 초기 부파불교의 문헌들과 자이나로 대표되는 비불교적인 문헌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초기경전의 서술

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1986년 브롱코스트 교수가 출판한 <고대인도의 두 가지 선정수행 전통>은 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책에서 그는 선정사상에 대한 고대인도의 자이나 불교 및 브라만 자료들에 대한 폭넓은 조사를 통해 불교의 초기경전에 나타난 선정에 대한 서술들에 얼마나 다양한 요소들이 혼재해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이들의 상호영향관계를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쟁점이 되는 문제들을 대칭서 선정명하게 논의하고 있다.

영·독·불 등 4개국어 능통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문헌 다뤄

고대 인도 선정사상 연구

또한 브롱코스트 교수는 <인도 고행주의의 두 가지 근원>이라는 책을 통해 고대인도 선정사상연구에 몰두했다. 여기에서 그는 인도 고행주의의 기원 및 고행주의에 관련된 철학적인 논의들을 심도 있게 다뤘다.

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종교적 수행과 철학적 대화를 인도철학의 맥락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접근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브롱코스트 교수는 1998년 한국에서 열린 무차선회에 참석차 내한 한 적이 있다. 당시 그는 교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불교의 수행전통을 보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다만 몇몇 학자들의 지나치게 호교적인 태도와 경전에 나타난 언급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에 조금은 놀랐다"며 "아비달마를 포함한 초기불교의 문헌들은 불교 내부의 다른 판본들과 자이나 및 우빠니샤드의 문헌들과의 검토를 통해 비판적으로 검증했을 때에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냐은 기자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

세계 최대 불교사원으로 기네스 등재

인도네시아 대표적 관광 자원 중 하나인 중부 자바 마젤랑의 보로부두르 사원이 세계 최대 불교 사원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7월 5일 밝혔다.



세계 최대 불교사원으로 인정받은 보로부두르 사원

인도네시아 관광·창조경제부 푸르노모 시스위프라세초 보로부두르-프람바난 관광국장은 "기네스월드레코드(GWR)가 최근 보로부두르 사원을 세계 최대 고대 불교사원으로 인정했다"고 전했다.

기네스월드레코드는 홈페이지에서 "중부 자바 족자카르타 인근의 보로부두르는 750~842년 건설된 세계 최대 불교 사원"이라며 6만㎡의 석조물이 가로, 세로 각각 123m, 34.5m 높이가 솟아있다고 소개했다. 사일렌드라 왕조 시대에 건립된 이 사원은 정사각형 기단 위에 검은색 화산암을 쌓아 올린 구조물로 사원 벽면에 불교 사상을 전하는 부조 1460개가 새겨져 있다.

보로부두르 사원은 1991년에는 유네

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으며 국제적으로도 중부 자바와 족자카르타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지난해 보로부두르 사원을 찾은 관광객이 모두 250만명으로 전해보다 15% 증가했고 올해 1분기 관광객도 작년 동기보다 16%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냐은 기자

현대불교신문·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만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층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봉사도 지원 가능합니다.



- 신부들 출가익식 지원

신부들은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행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부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도움을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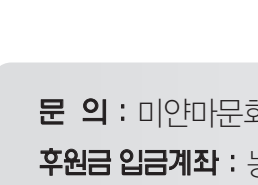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이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교는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미얀마문화원